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8. 10:00 제2차 본회의

# 시 정 질 문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

# 시 정 질 문

강릉시의회 김복자의원

행정위원회 김복자위원입니다.

최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한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가 시작된지 벌써 절반이 넘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은 60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예산이지만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편성되어 작게나마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부 또한 내년 예산을 방역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었고 국고 지원의 일자리지원사업 등이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약 50억원 규모로 늘어난 만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근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장님 요즘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긴장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마스크를 쓰고 답변하시는게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성심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1차 본회의 때 내년 당초예산에 대한 시정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 취임하신지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네요. 민선7기는 올림픽 이후 출발하게 되어 시민들의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나름대로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본의원이 느낄 때는 지역의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해 어떠한 기반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 같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정책보다는 눈에 잘 보이지 않

는 시장님의 중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 취임후 체결한 MOU가 약 12개부서 35개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Q1> 지난 7월말 민선7기 후반기 정책추진에 대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미래 핵심산업으로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전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시정연설에서도 ‘고부가가치 친환경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시장님은,

“10월 15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연구 교류 협약을 시작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희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이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시가 직접 기술개발을 하는게 아니죠?**

Q2)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고, 연구원 등을 통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업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산물인 석탄재를 곱게 갈아서 그 가루를 연소해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들어가는 희토류를 추출하겠다는 것입니다. 희토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매장량 점유율이 중국이 세계37% 정도되고 실질적 공급 비중도 중국이 85%정도 돼서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정부는 1980년대부터 희토류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지원한 정책과 함께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이다.)

Q2) 본의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한국지질연구원의 구 해수리튬연구센터 건축물을 기부채납 취득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공유되지 않다보니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시장님은 핵심 미래산업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시민들은 생소하기만 합니다.

## =>시장님의 핵심 미래전략사업 맞습니까?

이 사업은 강원도형 그린뉴딜 전략사업이고,

현재 산업부가 기획연구과제 580억원을 들여서 희토류 대량제조 사업에 대한 mini-pilot(미니파이럿) 규모의 실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산자부와 협의하여 내년에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럼, 일차적으로 옥계해수리탐센터는 기존 장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국비,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공유재산을 심의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내용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 희토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석탄재에 있는 희토류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변국보다 낮은 것이 기반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런 사업이 우리시의 핵심사업이라면 시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계산단은 희소금속관련 단지다 보니, 강원도가 애를 쓰는 것인데, 포스코 추진사업의 문제에서도 보았지만,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촘촘한 검토를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 될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님 전략사업으로 하려면/ 막연하게 부풀리지 말고,

강원도든 중앙정부든 먼저 찾아가서 주력사업으로 만들 명분과 데이터를 생산해서 주민들에게도 구체성을 갖고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환경에 대한 안전한 데이터를 갖고 실증 단계를 추진 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Q1. 강릉남부권 대규모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과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관광거점도시를 완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릉남부권에 대규모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옥계면 금진리 일대에 약80만평 부지에 (주)영풍문고가 약 2조원 규모의 테마빌리지, 엔터테인먼트 쇼핑타운, 호텔, 골프장 등으로 구성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 3. 26일(주)영풍문고와 특구개발 조성사업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지내 있는 사격장 이전을 추진해 왔는데요.**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되었습니까?**

**Q2) 강릉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 3월 양해각서를 체결 이후에 사업자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관계되는데 법률의 시행령에 따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진행해야 되죠. 다시말하면, 이전 대상 시설물인 사격장에 대하여 강릉시가 대체 시설물을 기부하고, 강릉시에게 이전시설물을 양여하는 방식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우리시가

지난 10월 30일 (주)영풍문고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SPC 설립 등의 구체적인 사업실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문고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고, 투자운영계획등의 세부적 검토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돌발적 경제 악상황이 초래되어 투자자들과의 협의가 중단되다시피 해서 세부실행 계획의 확정 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는데요..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Q.시장님!영풍문고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

<요구안>

Q. 시장님 취임부터 진행했던 옥계항의 항만시설 확충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옥계산단 사업시행자인 포스코가 공장 시설 철거 입장을 밝혔고, 대체사업 발굴에 있어, (주)영풍이 공장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우리시는 향후 옥계항을 산업용 무역항만의 거점 역할의 필요성을 들어서 ‘한라시멘트주식회사’에 ‘기업 유치에 위한 항만시설 사용동의’를 요청했습니다.

**Q. 시장님! (주)영풍이 옥계항을 사용해서 어떤 물류를 유통하려고 하는거죠?**

(시장답변) (필요시 영풍 귀금속 및 2차 전지 순환 허브 기지 조성)

=>그러니까 (주)영풍이 강릉에서 아연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아연을 현 포스코 공장에 저장하고 새로운 공장도 만들어서 옥계항을 이용해 물류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아닙니까?

경북 봉화의 석포제련소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아연제련소는 아니지만, 아연과 관련한 물류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해도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계획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인근 주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이구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주민들이 호의성을 갖고 있는 (주)영풍문고의 남부권 관광단지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핵심은 (주)영풍의 아연 물류단지를 옥계산단에 자연스럽게, 지역의 반발 없이 갈등의 소리없이! 안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영풍의 숨은 의도는 아닌건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영풍문고의 장밋빛 화려한 사업계획은 영풍의 아연산업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강릉시는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옥계산단 사업이나 남부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북방허브물류단지 사업들이 시장님의 전략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을 보니까, 처음에 도시 재생과 →도시과 → 균형발전과 →특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담당계장님들이 업무는 계속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는 민선7기 초기에 경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강릉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산업들의 기반에 대한 부분들이 수면 밑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회에도 충분한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 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Q. 더구나 지금 올림픽종합특구 2단계 사업 중에 지난번 논란이 되었던 경포북부권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특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올림픽 1단계특구사업으로 시작된 JJ호텔리조트나 경포 올림픽카운티 등이 올 12.31 승인 만료되고 차이나드림시티만 간신히 2022년으로 승인만료가 미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강릉시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강릉시의 2035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세워져야 하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올림픽이전에 수립했어야 하는데, 올림픽 이후의 환경변화를 담아서 수립하고자 늦어진 측면이 있었는데요.

우리시가 계획인구 산정에 있어서, 자연적 증가인구, 사회적 유입인구, 주간활동인구를 고려해서 40만으로 산정했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개발계획을 부풀려서라도 인구40만도시로 계획하지만,

국토부나 강원도가 봤을 때는 개발계획의 구체성이 너무 없다보니

목표인구에 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조만간 강원도에서 관련행정기관과 협의된 의견이 전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사실, 5년간을 도시 기본계획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후에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인데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의 담당계장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목표인구를 40만에 맞추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제일강릉 이런 구호가 가능하겠습니까?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성장과 지속가능한 스마트한 도시비전을 마련해서 향후 15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버릴 것은 버리고

실현가능한 미래 산업에 대해 집중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 <세번째 질문>

Q3. 도심지내는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소유주 설득도 어렵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입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 남부권노인종합복지회관도 서너번의 부지변경을 해야 했다. 또한 특히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주차장 조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시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유지 및 도유지 등 국공유재산 교환이 가능한 부지도 적극 모색하여 공공시설 비축용 토지를 확충하고 적재적

소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시장님 이러한 의지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포남1동의 경우 극심한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 동부지방산림청 부지와 교환하는 방법이 몇해가 지나도 어떠한 해결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마지막 종합 요구안>

시장님은 인구를 늘이려고 애를 쓰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홍보는 선주민들이 강릉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해마다 침수피해 있고, 땅꺼짐에 대한 불안, 하수관로 악취문제..주민편의와 직결 된 사업들을 너무 국비에만 의존하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가용재산에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준다면 강릉시민들이 살기좋은 강릉에 대한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인식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네 번째 질문

Q.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국장님이 주신 답변에 보면, 2021 사회적경제 발전전략에 대해서 우리시는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지원이 끝나면 자립이 어렵다는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한 5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협동조합 같은 소상공인 사업체는 75만개가 설립되었지만 무려 67만개가 폐업되었습니다. 생존율이 30%가 안됩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협동조합의 생존율은 50% 정도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우리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릉청년정책네트워크도 활동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에 대한 계획을 시행계획도 살펴봤습니다.

본의원이 덧붙여 제안을 드리면, 청년실업과 사회적경제를 매칭해서 정책적 접근을 했으면 하는데요.

탈강원 현상과 청년인구 순유출이 많은 상태이다.

그런점에서 청년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정책적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공익적 사업들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청년과 사회적기업들을 매칭하게 되면 청년들은 사회적경제 일터를 기반으로 실무교육을 제공받고 일자리도 얻어 기반을 형성할 수 있고 기업도 청년 인재들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사례들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들이 굉장히 긍정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청년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직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육아휴직 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번 사안을 비추어볼 때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업무누수가 발생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처음 수급자 신청서를 받은 다음, 실제적인 지출실태조사표를 받는다거나 추가제출서류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결정을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불충분한 공적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누수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 활동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적시하셨는데,

여기에 전수실태조사의 의미가 포함 된 것입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면 시장님은 적극 지원하셔서 주시길 요구드립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12월 4일

본인의 자발적 선택인 육아휴직을 통해 일시적 소득 중단 상태를 근로소득 중단으로 적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건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 대해 반환 시킬 것입니까?

환수시킬 것입니까?

**국가가 선의의 목적으로 만든 사회보장급여제도가 시민들의 신뢰 속에서 엄정하게 집행 될 수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